

오르고 또 오르고... 연말 물가 대공습

음료·주류·농수축산물 인상...공공요금도 '들썩'

0%대 물가지수 1%대로 서민가계 주름살

최근 음료와 주류 등이 가격 인상대열에 가세한다. 양파와 소고기 등 농축산물 물가까지 출몰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23일 광주시와 관련업체 등에 따르면 올해 내내 0%대이던 물가지수가 양파(104.5%), 파(33.5%), 마늘(27.6%), 감자(19.3%), 국산 쇠고기(11.9%) 등 채소, 과일, 어류 등 신선식품물가의 가격 폭등으로 최근 1%대로 들어섰다.

코카콜라음료는 지난 1일자로 스프라이트의 공급가를 평균 7% 인상했다. 품목은 캔250ml, 캔300ml, 캔 355ml, 페트 500ml, 페트 1.5ℓ 등 5개다.

서민들의 시름을 달래주던 소주도 가격인상 대열에 가세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클래식의 출고가를 961.7원에서 1015.7원으로 5.62% 인상했다. 지난 3년 동안 소비자물가 상승을 포함한 누적 인상 요인이 12.5%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소주 출고가가 1000원대에 들어서면서 여타 업체의 가격 상승도 부추길 것으로 예상돼 서민들의 어깨를 누르고 있다.

여기에 고속도로 통행료와 등기우편 수수료 등의 공공요금 인상도 예고되면서 서민물가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내 등기우편 수수료가 10% 이상 오른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1월부터 등기우편 수수료를 현행 1630원에서 1800원으로 10.4%(170원) 인상하는 내용의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

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등기우편 수수료 인상은 2012년 이후 4년 만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평균 4.7% 오른다. 바뀐 통행료는 오는 29일 0시에 요금소를 빠져나가는 차량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호남고속도로 광주~서울(294.8km) 구간이 승용차의 경우 1만4400원에서 1만5300원으로 오른다. 새로 확장 개통한 광주~대구간 고속도로도 통행료 2배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부담으로 다가온다. 담양~성산(152km) 구간은 경우 기존 3900원에서 8000원 안팎으로 통행료가 오르게 된다.

일선 지자체들도 공공요금 인상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순군은 하수도 요금을 2016년 1월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각각 9.9%, 8.2%, 8.0% 인상할 예정이다. 몇몇 지자체들도 상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 인상 여부를 조율할 것

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서민물가 상승에 곳곳에서 서민들의 탄식이 나오고 물가 관리에 비상이 켜졌지만 당분간은 하늘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물가를 저다만 봐야 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세월이 4% 상승하고 대중교통 요금·하수도 요금 같은 공공서비스 물가까지 2% 오르면서 작년 12월부터 이어진 0%대 상승물이 깨졌다"며 "앞으로 공공요금 등 인상물 내용이 있어 내년 서민물가는 올해보다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주부 김모(43·광산구 신가동)씨는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는데 세금은 더 많이 떼어간 나루나 살기가 벅하다"면서 "월급 빼고는 다 오르기 가계부 쓰기가 두렵다. 제발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90.65 (-3.07)
- ↓ 금리 (국고채 3년) 1.66% (-0.01)
- ↓ 코스닥 656.53 (-3.07)
- ↓ 환율 (USD) 1167.80원 (-5.30)



솔로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비나와라"

보해양조 '부라더#소다' 크리스마스 짹짹 광고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의 신개념 탄산수, '부라더#소다'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크리스마스 버전의 부라더#소다 짹짹 광고를 공개했다.

이번 크리스마스 광고는 기존 부라더#소다 광고 '이불받기 편'에 크리스마스를 홀로 보내는 솔로들을 위한 문구를 담아 재미를 더했다. 모델 하연수가 몸으로 이불을 말며 바닥을 구르면 '#크리스마스 #비나와라'라는 문구가 바닥에 한 글자

씩 나타나는 내용으로 구성된 연인들을 질투하는 솔로의 마음을 재미있게 풀어냈다. 여기에 귀여운 표정의 하연수가 안경 모양의 빨대로 부라더#소다를 마시는 장면에서는 입세 모양의 부라더#소다 로고들이 눈송이처럼 떨어져 크리스마스와 겨울 분위기를까지 잡아냈다.

해당 광고는 크리스마스 주간인 26일까지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완도군-광산업진흥회 LED조명교체 위탁협약

나라장터 입찰 사업자 선정

지방자치단체의 LED 교체사업자 선정에 전문기관 위탁방식이 도입됐다.

24일 완도군 등에 따르면 완도군과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이재형)는 최근 LED보안등(5500개) 교체사업 협약을 맺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광산업진흥회에 위탁해 일괄공고했다. 사업비는 제품검사비를 포함해 38억여 원이다.

광산업진흥회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해 사업자 제안을 받은 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전문기관 위탁 입찰방식은 전

국에서 김포시와 홍성군에 이어 세 번째이며 광주·전남에서는 처음이다.

한국광산업진흥회와 완도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5억4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광산업진흥회 관계자는 "산업부가 2020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에너지절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교체비용이 미미한 실정이다"며 "전문기관 위탁방식으로 LED 교체사업을 진행할 경우 특혜시비 등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부작용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의심금융거래정보 금융사간 실시간 공유

내년부터 사기 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사들이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보안원과 은행·카드·증권 등 금융권은 이상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

보금융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의심내역을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한 금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사기 행위로 의심되는 거래가 감지되면 즉시 다른 금융사로 전파해 금융사기 확대를 막는 방식이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연말연시 이웃사랑 실천

1억원 상당 지역사회 기부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이 연말을 맞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총 1억원 상당을 지역사회에 기부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은행은 지난 23일 본점 1층에서 광주·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참여에 이웃사랑 성금 6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가운데 4000만원은 전 임직원 1,700여명이 매월 급여 나눔 활동으로 1년간 모은 것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이에 앞서 광주은행은 북구 매곡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서 열린 사랑의 등불 점화식에 참여해 적십자 성금 30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광주은행의 적십자 성금 전달은 최근 경

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의 적십자 성금 모금활동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광주은행 지역사회봉사단은 22일과 23일 이틀간 지역 소외계층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총 1000만원 상당의 방한복 500벌과 보온용품을 직접 포장 및 독거노인세대를 방문 전달하며 연말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섰다.

광주은행 송종욱 부행장은 "날씨가 점점 추워지지만 광주은행이 펼치는 연말 사회공헌활동으로 우리지역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추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 왼쪽부터 광주은행 송종욱 부행장,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허정 회장, 광주은행 강대우 노조위원장,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상균 사무처장. <광주은행 제공>

친환경차 각종 세금 감면 혜택 내년에도 쭉~

장애인·다자녀양육자용 승용차 면세 동일 적용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 경자동차, 장애인차량, 다자녀 양육자용 승용차에 주던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제공된다.

24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파악한 '2016년 자동차 관련 제도 변경내

용'에 따르면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이 공포되면서 내년 1월 종료될 예정이던 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포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201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됐다. 따라서 내년에도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개별소비세율 5%, 면세한도 130만원

이 적용된다. 또한, 이달 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공포돼 내년 1월 종료될 예정이던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이 2018년 말까지 3년간 더 연장됐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취득세율 7%, 면세한도 대당 140만원이 적용된다. 승용, 승합, 화물 등 경자동차 역시 취득세 감면이 3년 연장돼 취득세율 4%, 면세한도 전액이 그대로 적용된다.

장애인자동차(2천cc 이하) 취득세·자동차세 감면도 3년 연장돼 장애인용 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득세율 7% 적용되고 면세 한도는 취득세·자동차세 전액이 유지된다. 다자녀양육자용 승용차도 취득세 감면이 3년 연장돼 취득세율 7%, 면세한도 140만원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동차회사가 안전기준 부적합 제작 결함 발생 시 즉시 이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능장 리콜'을 하는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몰도록 과징금을 신설했다. /연합뉴스

당신이 궁금한 셀럽! 밀착토크 해드립니다!

밀착토크 **동인-이찬소 Show**

MC 공형진

매주 월요일 밤 11시

CHANEL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원도 16	스카이라이프 13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장흥	IPTV 18	